

우리 사회의 역사적 자아는 어떤 모습일까?

글 · 최현정 chhjung@paran.com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과거사 위원회나 진실위원회의 활동에 힘입어 그동안 침묵으로 억압되었던 역사적 트라우마가 서서히 세상으로 드러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닦으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은폐와 부인, 망각과 침묵, 억압과 합리화의 미봉책으로 단절시켜 놓은 국가의 역사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다시 주저하려는 기미가 보여 걱정이 됩니다. 아직 우리의 역사적 자아가 미성숙한데도 성급히 통합과 화해를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 자아의 눈가림에 다름 아니지요. 밝혀진 역사의 트라우마를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트라우마가 끝없이 반복되어 곧 누군가가 고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타자를 향한 폭력에 둔감한 단절된 사회, 끔찍한 사회로 가는 길에 위험천만한 발을 내디디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이는 진정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말하자면 재피해(re-victimization) 혹은 반복 트라우마(re-traumatization)로서, 이것들은 '자신도 원치 않는 사이 또 다른 위험 속으로 스스로를 내몰게 된다'는 트라우마의 핵심 후유증 중 하나입니다.

독일 · 일본의 역사적 자아가 낳은 사회적 자아의 모습

언젠가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1970년에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 봉기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본성을 말했던 프로이트라는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절망 속에서 '인간에게는 죽음의 본성이 있다'고 자신의 이론을 수정한 것처럼,



바르샤바 게토 봉기기념비 앞에 무릎꿇은 빌리브란트 전 독일 수상

럼, 독일 나치의 폭력과 침략전쟁은 인류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대 독일은 건강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나치의 기억을 통합하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역사적 자아는 폭력을 부인하고 억압하려는 뜻에 걸리지 않은 채 나치의 박해와 만행을 철저히 드러내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며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

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피해자와 동일시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역사의 트라우마를 통합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으로 인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 성폭력을 마치 전쟁의 어쩔 수 없는 속성처럼 둘러대면서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든다며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고, 정치가가 전범과 피해자들이 모두 안장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폭력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본은 국가 권력과 강자의 논리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삶에 날벼락과도 같았던 트라우마를 정당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역사적 자아가 오늘날 어떠한 사회적 자아를 낳았는지를 고민해 볼 때,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짚어보고 싶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도 역시 극우 집단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경계되며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치의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언급이나 타인을 배척하는 사건들이 다시 등장하려는 마치 악몽과도 같은 조짐이 보일 때에도 형법을 매만지는 등의 끊임없는 자아 수정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폭력을 부인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극우의 입장이 상당히 수긍되는 분위기라 합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설명되지 않는 약자를 향한 끔찍한 폭력사건들을 보았을 때에도 일본의 역사인식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폭력성을 예측하는 요인에는 개인적 기질이나 성격 혹은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상황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전후 책임을 방기하는 일본의 모습에서, 넓게는 폭력과 타자를 향한 역사적 인식들과 상관있는 이 분명한 지점들을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 자아의 모습은?

그렇다면 한국 사회 집단의 역사적 자아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독일의 전쟁 범죄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흔히 ‘우리 민족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일본이 전후책임의 문제를 향해 전승국의 일방적 대처라고 응수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혹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기이한 합리화를 방법삼아 가해자로서의 우리 사회의 얼굴에 끄떡 않는 철면피를 씌우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어느 나라에서는 가해자이며, 또 국내에서도 국가권력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철천지원수이기도 함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거 오래 전의 일이 아니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근래에는 폭력적인 극우 집단이 배양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왜곡된 역사 인식 때문에 이들의 폭력은 경계되지 못하고 찬반으로 갈리는 실정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거나 피해를 애도하는 움직임이 ‘빨갱이 짓’인가 아닌가를 논박해야 하고, 배타적인 폭력 행위가 ‘반공에 따른 나라 질서 잡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지 가해의 주체뿐만 아니라, 약자를 배격하고 타자화하는 방임의 분위기 역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과 다르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 상대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는 ‘외부인’이자 ‘이방인’, ‘나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분리(splitting)’라고 합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용납되지 않는 속성들을 타인의 것으로 전가시킬 때 우리는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가 만연할 경우 이방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그 자신의 탓이 되고, 때로 그는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혹은 세상이 정의롭다는 알팍한 믿음을 붙든 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

다’고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폭력이 가해졌다는 그 기이한 사실을 한 번도 의문시하거나 캐묻지는 않고서 말입니다.

반면에 강자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사에서도 역시, 강자의 범죄가 제대로 추궁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논리는 당연히 될 뿐입니다. 그리하여 경쟁에서 이기고 강자가 되도록 스스로를 부추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늘을 드리우는 이러한 ‘분리’와 ‘강자와의 동일시’ 양상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처한 우리 집단의 역사적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역사적 자아는 폭력과 부조리의 후유증을 반복하게 합니다. 마치 지구 어딘가에 초원이 사라져가고 사막이 확장되면서 많은 야생 동물들이 근거지를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은 우리 스스로를 초원으로부터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가질 수 있는 자는 결국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리’ 그리고 ‘강자와의 동일시’



라이히, 파시즘의 대중심리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우선 라이히의 이론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히는 20세기 초중반에 활약하던 정신분석가로서 정신분석을 통해 파시즘을 비판하고 대중이 나치에 매료되고 만 심리적 기제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라이히는 나치 국가의 전략과 정책이 교묘한 방식으로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기 패배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대중심리를 양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까닭에 흥미롭습니다.

라이히가 자기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정신분석가였던 프로이트의 이론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잠시 프로이트의 이론을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움이 억압당했기 때문에 정신병리가 발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억압당한 것은 곧 성(性)이었으므로, 프로이트는 성의 억압이 인간의 자아 발달

의 기초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이는 엄마를 향한 성적인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역시 이미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이는 혹시 엄마를 사랑하다가 아버지의 복수로 인해 죽거나 다치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엄마를 향한 성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 때 성을 억압하는 아버지의 존재는 ‘초자아’라는 내면 표상의 형태로 아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초자아는 ‘마음속의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의 내면에는 권위주의와 엄격한 규율과 도덕주의적 규제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억압당한 아이는 엄마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을 억압하는 초자아를 닮으려고 애씁니다. 맥윌리엄스라는 심리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마치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서 나중에 엄마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곧 억압당한 자가 억압하는 자를 동일시(상대를 닮고자 하고 상대의 속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작동)하는 과정이며 라이히 이론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라이히에 따르면 억압당한 자는 억압자에게 동일시하면서 그로 인해 다치거나 죽게 될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강자의 속성을 익힘으로써 강자의 원칙과 지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라이히는 이를 나치 극우 파시즘으로 확장시켜 설명했습니다. 나치는 권위주의적 가족의 체계의 ‘아버지’ 역할을 맡아 성을 격하시켰고, ‘더러운 성’의 속성을 유대인을 향한 생물학적 인종주의의 기반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중이 성이라는 자연스러운 속성을 부인하면서 공포로 억압당하고 결국에는 국가 체계에 스스로를 동일시하여 체계의 수행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라이히는 그의 이론대로 성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라이히는 집단의 정신을 설명하는 정신분석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한 자를 따르게 되는 마음의 모순이 당대를 풍미했던 성 억압 이론으로 자세히 설명되는 점에서 그의 설명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주목한 ‘공포’라는 지점을 다시 숙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자와의 동일시’라는 작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곧 억압과 공포입니다. 어린 아이에

게는 절대적인 아버지가 가하는 공포의 막대한 영향력이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유발한다고 했을 때, 역사적 트라우마와 공포의 기억 그리고 역사적 자아라는 주제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생을 위협했던 공포의 막대한 기억이 우리의 자아에 어떠한 변형을 야기 시켰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사람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는 대상의 속성을 받아들여 무의식적으로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불리는 자기 보호법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강한 공포와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탈출 방법이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완전한 무력 상태에서, 사람은 ‘나는 약한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강한 가해자야’라는 내면의 무의식적인 생각을 통해 무서움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탈출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역사에서 고통을 입은 자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밀렸고, 그들의 존재를 알고는 있으나 두려움에 취약한 국민들은 국가의 역사 인식에 따라 공격자와 동일시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분리나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일삼는 역사적 자아는 결코 바람직하거나 건강한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고통과 폭력을 부인하고, 고통을 힘없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며, 이들의 고통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경우,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자들과 연결되려는 시도는 파괴됩니다. 타인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일 뿐이며, 타인에게로 향한 연결고리는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 결과는 폭력의 지속, 그리고 너와 나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서로로부터 분리되고, 서로는 서로에게 타자일 뿐입니다. 결론을 바꾸어야 합니다!

글 최현정 |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임상심리학자. 역서에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 피터 엘사스의 『고문 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등이 있다.